<h1>나 혼자만 레벨업-18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d62fe223a7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8화</p>  
<p>1분 만에 나갈 채비를 끝낸 진우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.</p>  
<p>먼저 온 아홉 명이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.</p>  
<p>"여기요! 이쪽입니다."</p>  
<p>덩치가 제법 큰 털보였다.</p>  
<p>그는 살갑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.</p>  
<p>"성진우 씨죠?"</p>  
<p>"예."</p>  
<p>"아이고,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네. 이것도 인연인데 인사나 나누고 시작할까요?"</p>  
<p>털보가 간단하게 팀원들을 소개했다.</p>  
<p>본인을 포함한 여덟 명은 원래부터 같이 다니던 멤버들이고, 한 명은 진우처럼 모자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모집한 사람이라고 했다.</p>  
<p>진우는 팀원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인상을 살폈다.</p>  
<p>높아진 감각 스탯 덕분에 상대의 역량을 대충은 가늠할 수 있었다.</p>  
<p>'비슷한 등급으로 보이는 이들이 다섯 명. 그 이하로 느껴지는 사람이 네 명. C급 다섯에 D급 이하가 넷인가.'</p>  
<p>C급 게이트를 공략하는 데는 규칙이 있다.</p>  
<p>최소 인원 10명에 C급 이상 헌터가 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.</p>  
<p>그래야 협회에서 허가를 내준다.</p>  
<p>사냥은 자기들이 할 테니 와서 머릿수만 맞춰 달라는 소리가 빈말은 아닌 듯했다.</p>  
<p>"다들 인사는 끝났으니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."</p>  
<p>자신을 C등급 탱커 황동석이라 소개한 털보는 레이드 경험이 풍부한지 시종일관 여유 있는 얼굴이었다.</p>  
<p>그가 이번 레이드에서 숙지해야 할 상황을 모두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데, 누가 가까이 다가왔다.</p>  
<p>"저기, 우리들 같은 자투리 신세네요."</p>  
<p>밝은 인상의 젊은 청년으로 황동석이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데려온 다른 한 명이었다.</p>  
<p>다만 진우처럼 비전투 멤버는 아니었다. D등급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멤버였다.</p>  
<p>이쯤은 유진호, 나이는 스물둘.</p>  
<p>인사를 건네는 유진호에게 진우는 가볍게 목례하고는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대화를 이어 나가려 했던 유진호는 머쓱한지 뒷머리를 긁적이다 자리로 돌아갔다.</p>  
<p>"형님, 고만하고 들어갑시다."</p>  
<p>"어차피 우리가 다 잡을 건데 뭘 그리 구구절절 설명해요."</p>  
<p>"그러게, 귀에 딱지 앉겠네."</p>  
<p>기존 멤버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황동석은 허허 웃으며 손뼉을 짝 쳤다.</p>  
<p>"그럼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, 이제 슬슬 들어가 봅시다."</p>  
<p>다들 게이트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.</p>  
<p>"아, 그전에 우선 두 분은 이걸 좀."</p>  
<p>황동석은 진우와 유진호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내밀었다.</p>  
<p>단출한 계약서였다.</p>  
<p>"끝에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."</p>  
<p>사냥에는 관여하지 않고 배분에서도 빠지는 대신 사냥이 끝나는 즉시 2백만 원 지불.</p>  
<p>조건은 전화로 나눴던 이야기와 동일했다.</p>  
<p>그보다는 마지막 문항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'던전에서 생긴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...'</p>  
<p>협회에서 진행하는 레이드와 달리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레이드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 헌터는 보험도 가입도 안 된다.</p>  
<p>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겨라.</p>  
<p>이제야 공격대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났다.</p>  
<p>조항을 확인하며 옆 유진호의 계약서를 흘깃 살폈다.</p>  
<p>역시 자신과는 다르게 2백만 원 대신 배분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.</p>  
<p>사인하기 직전 진우가 황동석에게 물었다.</p>  
<p>"그럼 전 뭘 하면 됩니까?"</p>  
<p>"따로 하실 건 없고, 저희들 따라다니면서 짐이나 좀 맡아 주세요."</p>  
<p>"짐이라면...?"</p>  
<p>황동석은 자신의 동생들이 봉고에서 꺼내 오는 커다란 배낭을 가리켰다.</p>  
<p>"안에서 먹을 도시락이랑, 여분 옷이랑 장비, 구급상자 같은 거 이것저것 들어 있습니다."</p>  
<p>잠깐, 던전에 들어가는데 구급상자라니?</p>  
<p>진우가 의문을 표했다.</p>  
<p>"설마 힐러 없이 가는 겁니까?"</p>  
<p>"아시잖습니까, 개인 공격대에서 치유계열 헌터님 모시기 쉽지 않은 거. 저희는 늘 이렇게 했는데요, 뭘."</p>  
<p>황동석이 어색하게 웃었다.</p>  
<p>아슬아슬하게 최저 기준만 겨우 맞춘 숫자에, 레이드를 소개팅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보충 멤버 하나에. 힐러 없이 탱커와 딜러만 갖춘 공격대 구성이라니.</p>  
<p>옆의 그 보충 멤버는 힐러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표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.</p>  
<p>완전 초짜라는 증거다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삼켰다.</p>  
<p>'엉터리들이네.'</p>  
<p>그럼에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까닭은 돈 2백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. 이제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"여기 있습니다."</p>  
<p>"저도요!"</p>  
<p>황동석은 두 사람의 사인을 확인하고서 기분이 좋은지 큰 소리로 외쳤다.</p>  
<p>"자, 갑시다!"</p>  
<p>\*\*\*</p>  
<p>일행은 게이트가 생성된 장소로 향했다.</p>  
<p>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.</p>  
<p>"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..."</p>  
<p>황동석은 혀를 끌끌 찼다.</p>  
<p>짓다 만 아파트들이 거대한 묘비처럼 을씨년스럽게 듬성듬성 남아 있었다.</p>  
<p>거인들의 공동묘지가 이런 분위기일까.</p>  
<p>"그거 아세요?"</p>  
<p>옆으로 다가온 유진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.</p>  
<p>"여기 직원들하고 투자자들은 지금 다들 죽니 사니 하고 있는데 사장은 9천억 가지고 해외로 튄 게 벌써 두달 전이란 거?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가 이미 여러 번 눈치를 줬지만, 유진호는 진우 옆을 떠나기가 싫은 듯했다.</p>  
<p>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8인이 원래 한 팀이었던 까닭에 어울리기 힘든 모양이었다.</p>  
<p>"형은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?"</p>  
<p>어느새 호칭이 형으로 변했다.</p>  
<p>이제 무시하기도 지친다.</p>  
<p>"...너는 눈치도 없냐?"</p>  
<p>"눈치받고 살아 본 적이 없어서. 헤헤."</p>  
<p>애가 밝은 건지, 생각이 없는 건지.</p>  
<p>진우는 해맑게 웃는 유진호를 보며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하지만 확실히...'</p>  
<p>게이트 근처만 가면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이다.</p>  
<p>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에겐 단순한 돈벌이일지 모르지만, 진우에게는 매 레이드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.</p>  
<p>아픈 기억이 많으니 예민해질 수밖에.</p>  
<p>"여깁니다."</p>  
<p>황동석이 걸음을 멈추었다.</p>  
<p>오-</p>  
<p>헌터들이 탄성을 흘렸다.</p>  
<p>"황 형, 여기 C급 게이트 맞아요? 좀 큰데?"</p>  
<p>"그럼 협회에서 구라를 쳤겠냐. 조사원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단다."</p>  
<p>허공에 떠 있는 블랙홀 같은 구멍. 그걸 게이트라고 불렀다.</p>  
<p>내부의 마력 파동 수치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, 협회에서 먼저 와 등급을 측정해 고지한다.</p>  
<p>그러면 공략하고 싶은 개인이나 길드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.</p>  
<p>A급이나 B급 게이트는 보통 대형 길드들의 몫이었다.</p>  
<p>개인이 공략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.</p>  
<p>개인 공격대는 주로 그 아래 단계의 게이트를 취급했다.</p>  
<p>그러니 C급 게이트는 소속 없는 헌터들이 공략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인 셈이었다.</p>  
<p>황동석이 게이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제가 먼저 갑니다. 다들 잘 따라오세요."</p>  
<p>탱커인 그를 선두로 헌터들이 하나둘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.</p>  
<p>'혹시 모르니까.'</p>  
<p>진우는 만약을 대비해 가볍게 몸을 풀었다.</p>  
<p>그 옆에서는 유진호가 하나둘 장비를 꺼냈다.</p>  
<p>장비 가방에서 나오는 검과 방패는 아주 번쩍번쩍했다.</p>  
<p>한눈에 봐도 고가의 장비들.</p>  
<p>초짜 헌터가 혼자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.</p>  
<p>'눈치받고 살아 본 적이 없다더니 있는 집 자식이었나?'</p>  
<p>진우가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유진호는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"형 E급이라고 하셨죠? 형은 제가 지켜 드릴게요. 제 옆에 딱 붙어 계세요."</p>  
<p>진우는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누가 누굴 지킨다는 건지.</p>  
<p>"...그래. 말이라도 고맙다."</p>  
<p>"우리도 들어가죠."</p>  
<p>진우의 심정이야 어쨌든 두 사람도 무사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던전 내부는 조용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고요하고 어두웠다.</p>  
<p>황동석이 첫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규환아. 불 켜 봐."</p>  
<p>"예."</p>  
<p>마법계열 헌터 조규환이 허공에 빛의 공을 띄웠다.</p>  
<p>시야가 환해졌다.</p>  
<p>황동석은 방패를 내리고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뭐야? 여긴 왜 마수가 없어?"</p>  
<p>"그러게요. 불도 꺼져 있고."</p>  
<p>보통 던전에는 야광석이라는 돌들이 동굴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 시야를 밝혀 준다.</p>  
<p>그런데 이번 던전에는 그 야광석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. 유진호가 진우에게 귓속말을 건넸다.</p>  
<p>"형, 마수가 없는 던전도 있나요?"</p>  
<p>"쉿."</p>  
<p>진우가 조용하란 제스처를 취했다.</p>  
<p>진우의 귀가 움찔거렸다.</p>  
<p>멀리서 무수한 발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없는 게 아니야. 아직 안 온 거지."</p>  
<p>유진호는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드드드-</p>  
<p>곧 진우가 들었던 소리를 일행도 들을 수 있었다.</p>  
<p>그래야 황동석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.</p>  
<p>야광석이 없는 던전이라면...?</p>  
<p>"떼 지어 움직이고 어둠 속에 살면서, 빛을 보면 달려드는 게 뭐지?"</p>  
<p>아차!</p>  
<p>황동석과 동생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다.</p>  
<p>"벌레들!"</p>  
<p>"벌레다!"</p>  
<p>"씨발, 왜 하필 벌레야!"</p>  
<p>황동석이 외쳤다.</p>  
<p>"다들 포지션 잡아! 온다! 정면!"</p>  
<p>외길 통로 저편에서 무언가 잔뜩 무리 지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.</p>  
<p>"혹시 여기 개미굴은 아니겠지?"</p>  
<p>"재수 없는 소리 마라."</p>  
<p>여러 마수 중에서도 곤충형은 특히 골칫덩이였다.</p>  
<p>어지간해선 잘 죽지도 않고, 항상 무리 지어 다니는 데다, 각 개체의 힘이 약한 것도 아니니까.</p>  
<p>그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개미들이었다.</p>  
<p>많은 헌터들이 개미굴에 발을 잘못 들였다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.</p>  
<p>드드드드드드-</p>  
<p>벌레의 다리들이 바닥을 기는 소리가 요란했다.</p>  
<p>근처까지 왔다는 뜻이다.</p>  
<p>황동석이 방패를 턱밑까지 들어 올렸다.</p>  
<p>그런데 벌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뒤에서 동생들이 떠들어 댔다.</p>  
<p>"뭐야? 왜 안 보여?"</p>  
<p>"소리는 가까운데?"</p>  
<p>"동석이 형, 앞에선 좀 보여요?"</p>  
<p>진우가 소리쳤다.</p>  
<p>"위!"</p>  
<p>'뭐?'</p>  
<p>황동석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.</p>  
<p>드드드드드-</p>  
<p>거대한 벌레들이 위쪽에서 달려오고 있었다.</p>  
<p>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놈들이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릴 뻔했다.</p>  
<p>벌레들처럼 무리 지어 움직이는 마수들과 싸울 땐 진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.</p>  
<p>'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...'</p>  
<p>황동석은 간담이 서늘했다.</p>  
<p>그나마 다행이라면 많은 종류의 벌레들 중 개미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그가 목청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"쏴! 쏴서 떨어뜨려! 내려오면 어글은 내가 잡는다!"</p>  
<p>화살이나 마법들이 벌레들을 향해 날아갔다.</p>  
<p>쉬익, 푹!</p>  
<p>퍼엉!</p>  
<p>끼에에엑-</p>  
<p>끼에-</p>  
<p>몇 마리가 헌터들의 공격에 맞고 떨어지자, 남아 있는 녀석들 전부가 지상에 내려앉았다. 헌터들과 싸울 생각이다.</p>  
<p>이제부터는 탱커의 역략이 중요했다. 황동석은 도발 스킬을 사용해 마수들의 시선을 끌었다.</p>  
<p>마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황동석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여기다, 벌레들아!"</p>  
<p>키에에에에!</p>  
<p>수십 마리의 마수들이 황동석에게 돌진했다.</p>  
<p>캉캉!</p>  
<p>카가가강!</p>  
<p>캉!</p>  
<p>그의 방패가 벌레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 냈다.</p>  
<p>벌레들의 강한 턱과 발톱도 방패를 찢지는 못했다.</p>  
<p>탱커인 황동석이 선두에서 안정적으로 잘 버텨 냈다.</p>  
<p>"대기, 대기, 대기!"</p>  
<p>황동석은 타이밍을 쟀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